

광주 가장 비싼 땅 총장로 'EXR의류점'

㎡당 950만원...전남은 여수시 교동 '잭니클라우스매장'

표준 공시지가 발표...광주·전남 2년 연속 상승세

전북에선 전주시 고사동 '금강제화' ㎡당 750만원

광주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동구 총장로2가 'EXR의류점'으로 ㎡당 9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여수시 교동 '잭니클라우스매장'이고, 전북은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금강제화'로 조사됐다.

27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11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1월1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광주·전남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광주는 지난해 0.88% 오른데 이어 올해에는 1.67% 상승했고, 전남은 지난해 1.10%에 이어 올해 2.38% 올랐다. 전북은 2.25% 상승했다.

광주지역의 경우 표준지 8641필지를 조사한 결과,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동구 총장로2가 'EXR의류점'으로 ㎡당 950만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940만원에서 10만원 상승한 가격이

지만 지난 2004년(㎡당 1040만원)과 비교하면 90만원이나 크게 하락한 것이다. 가장 땅값이 싼 곳은 광산구 등립동 일대로 ㎡당 560원이었다.

광주지역의 땅값 상승은 북구 첨단산업단지 2단계 조성과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를 앞두고 토지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격별로는 ㎡당 10만~100만원 미만인 5426필지로 전체의 62.8%를 차지했고, 이어 1만~10만원 미만은 1855필지(21.5%)였다.

전남지역은 표준지 6만3786필지 가운데 여수시 교동 '잭니클라우스매장'이 ㎡당 41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하지만 이 곳은 지난해보다는 땅값이 ㎡당 20만원 떨어졌다. 전남에서 땅값이 가장 싼 곳은 완도군 청산면 모도리 일대로 ㎡당 140원이었다.

전남은 여수 세계박람회와 해양중합리조트 개발 및 그에 따른 철도 확충, 여수·광양·순천의 연계 개발 붐이 일면서 땅값이 2.38%나 올라 전국 평균(1.98%)을 웃돌았다. 가격별로는 광주지역과는 달리 1만원 미만이 4만 2720필지로 67.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1만~10만원 미만인 1만4075필지(22.1%), 10만~100만원 미만이 6452필지(10.1%)로 조사됐다.

전북은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금

강제화'가 ㎡당 75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반면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일대는 ㎡당 120원으로 가장 싼다. 특히 남원지역은 전국 표준지 중 하위 10위에 3곳(2·4·5위)이나 포함돼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지역은 군산·부안의 새만금과 전주·완산의 전북혁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활발하면서 올해 땅값이 2.25% 상승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2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조정 내용을 심의해 4월22일 공시한다. 재산세 등 각종 과세과 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오는 5월말 결정, 공시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은, 신성장 동력 中 3800억 보증

신보·기보와 업무협약 체결

광주은행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진병화)과 KJB광주은행의 특별출연 및 보증료 지원을 통한 '신성장 동력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으로 광주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각각 특별출연한 50억원과 보증료 지원 20억원, 그리고 28일 광주·전남 지역보

증재단에 출연예정인 20억원을 포함한 총90억원을 출연하게 된다.

따라서 광주·전남 지역의 사업자는 양호하지만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출금액 기준 총3800억원의 신규보증이 제공된다.

이번 특별출연으로 보증기관은 3년간 광주은행에 90%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0.2%의 보증료를 우대하며, 광주은행도 거래실적 등에 따라 영업점점 전결로 최고 0.5%까지 금리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출산율 늘자 유아 상품 매출 '쑥쑥'

지역백화점 전년보다 10~25% 증가

지난해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지역백화점들의 유아 상품도 잘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는 모두 46만 9900여명으로 3년만에 출산율이 오름세로 돌아섰는데 같은 기간 지역 백화점들의 관련 매출도 10~25%가량 증가했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지난해 전년 대비 유아상품 매출성장률은 8월 2.2%, 9월 5.8%, 10월 14%, 11월 15%, 12월 15.7%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 들어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해 매월 꾸준한 성장을 보이다 올 들어 1월 24%, 2월 20%(26일 기준) 등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지난 23~27일까지 진행된 '2011 광주신세계 양광드 신세계대전'은 전년 동기 대비 35%의 높은 신장율을 기록했다.

상품별로는 출산용품 위주인 배냇저고리, 덧벃, 우추복, 상하 내복 등이 주 매출을 이뤘다. 지난해까지는 출산용품과 아동복의 판매율이 5대5 가량이었지만 올 해는 출산용품 매출 비중만 따졌을 때 20%가 더 팔렸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올 유아복 매출 5.0%, 유아용품 전체는 3.9% 성장했다. 월별로는 지난해 10월 21.5%, 11월 20.8%, 12월 6.5%, 2011년 1월 29%의 매출이 늘었다.

특히 파코라반베이비의 138만 원짜리 오르빈유모차가 하루에 한 대씩 팔릴 정도로 유모차나 카시트 등 발육기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출산용품 인기브랜드로는 블루투스, 파코라반베이비, 압소다 등이다.

현대백화점광주점도 지난해 두 자릿 수 신장에 이어 올 역시 17% 이상 증가를 보이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올 봄 유행 여성복 소개

2011 S/S 패션쇼를 진행했다. 총 33개 브랜드가 참여한 이번 S/S패션쇼는 올 봄, 여름 유행할 아이템들을 소개하였으며 고객이 직접 참여하는 이벤트로 모델과 함께하는 포토타임, 직접 의상을 입고 모델처럼 워킹도 해보는 이벤트를 진행,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지역 기업들

"2분기 경기 호전"

광주지역 기업들은 2분기 경기 상황에 대해 1분기보다 크게 호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27일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 1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분기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BSI(기업경기 실사지수) 126으로 나타났다. 이는 1분기의 102보다 24포인트나 오른 것이며, 2009년 2분기 이후 8분기 연속 기준치를 넘어서 기록이다.

지난 분기에 비해 경기가 호전된다

광주신세계 (총괄임원 조창현)는 최근 백화점 5층 여성복 매장 앞에서 브랜드가 참여한 이번 S/S패션쇼는 올 봄, 여름 유행할 아이템들을 소개하였으며 고객이 직접 참여하는 이벤트로 모델과 함께하는 포토타임, 직접 의상을 입고 모델처럼 워킹도 해보는 이벤트를 진행,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신세계 제공

고 예상한 업체는 40.2%, 비수할 것이라고 답한 업체는 46.0%였으며, 악화된다는 업체는 13.8%에 불과했다.

항목별로는 수출(133)과 내수(129)가 크게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고, 생산량 수준(134), 생산설비 가동률(129), 경상이익(105), 자금 사정(105) 등도 모두 좋아질 것으로 기업들은 내다봤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128), 대기업(138) 모두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으며 업종별로는 기계장비(144), 자동차·운수장비(140), 고무·화학·플라스틱(138) 업종의 전망이 밝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주간 증시 포커스

중동發 악재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 낙폭 과대주 선별적 매수접근 필요

중동發 악재에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며 1,950선에서 지지선 확보를 타진하고 있다. 1월 중순 이후 외국인 자금 이탈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던 신흥국과 달리, 경기 턴어라운드 모멘텀이 부각되며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가던 선진국 증시도 리비아 사태가 격화되면서 신흥국과 동반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1월 튀니지에서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산유국인 리비아로 전이되면서, 글로벌 투자심리는 유가 급등 우려로 잔뜩 위축된 상황이다. 따라서 3월 증시는 펀더멘탈 이슈 보다는 대외 변수들로 인해서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후반 낙폭 과대에 따른 단기 반등세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여전히 리비아사태의 향배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경기나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당분간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강(원화강세, 금리상승, 물가상승)로 가뜰이나 여가 무거워진 한국증시가 국제유가 급등 및 인플레이션 부담 가중으로 당분간 상승활로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최근 이머징시장 대비 선진증시의 투자 매력도 확대로 국내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외국인이 매도세를 이어가면서 지수의 하방 경직성도 상당부분 약해져 있는 상황이다.

다만, 최근 KOSPI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가격메리트가 재차 부각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기

지표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어 리비아 유혈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만 않는다면 지수의 추가 하락 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KOSPI 1,910~1,950선에서 강한 지지력을 기대해 볼 수 있어 당분간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더라도 추격매도보다는 하락시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

업종별로는 경기변화에 민감한 건설, 운수창고, 운수장비, 기계 업종들이 지난 1월말 KOSPI 고점 형성 당시보다 10% 이상 하락한 상황에서 과거 기술적 반등 장세 출현시 낙폭 과대주들의 반등 강도가 가장 컸다는 점에서 이들 낙폭 과대 업종 중심의 대응을 우선시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종목별 대응에 있어서는 첫째, 최근 추가 하락폭이 큰 업종 중에서 건설, 조선, 운송 업종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불안정한 기업환경 속에서도 이익전망의 상황조정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반도체, 에너지 업종에 대한 저점 매수 전략도 여전히 유요해 보인다. 셋째, 대형주 중심의 외국인 매물회화가 지속되면서 단기적으로 대형주의 반등강도에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실적호전 중소형주에 대한 매진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박 중 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신안군 500억대 방조제 공사 재개

법원, 입찰 금지 가처분 기각...건설협회선 반발

법적 다툼으로 입찰이 중단됐던 '신안군 500억원대 방조제 개·보수 공사'가 일단 정상화됐다. 법원이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와 소속 종합건설사들이 제기한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설협회는 법원 결정에 반발 후속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25일 건설협회 전남도회와 종합건설사들이 제기한 신안 방조제 개·보수 공사 관련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한 달 가까이 중지됐던 신안 방조제 개·보수 공사 입찰 절차는 정상화됐다.

신안군은 지난날 24일과 25일 긴급 입찰로 총 57건 사업비 580여원에 이르는 방조제 개·보수 공사를 발주했

다. 이 과정에서 신안군은 입찰 참가 자격을 전문건설업(석공사업) 등록 중 소지자로 제한했다.

그러자 건설협회와 종합건설사들은 이 중 28건 450여원의 긴급입찰 공사에 대해 참가자격 제한 조항에 문제가 많다고 지난날 28일과 3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과 '공사 도급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잇따라 제출했다.

하지만 목포지원은 지난 25일 이들 공사가 대부분 석축쌓기와 돌쌓임 공사로 전문건설업인 석공사업으로 발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관계자는 "공사금액이 크거나 일부 부대 복합공정이 포함됐다고해서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종합건설업이 공사를 맡게 되

면 결국 하도급으로 시공비용이 유출되고 이는 직접공사비 감소로 이어져 공사 부실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협회 전남도회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정확한 사유 등이 담긴 결정문이 다음달 2일께 전달될 것"이라며 "결정문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즉시 후속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로또복권						(제430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1	3	16	18	30	34	44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611,763,219		8
2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47,755,948		45
3	5개 숫자 일치			1,483,104		1,449
4	4개 숫자 일치			50,000		70,039
5	3개 숫자 일치			5,000		1,180,669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3급 공무원 시험 [국·공·민] 최다 합격! 최강 퍼펙트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리보십시오

7급 종합반 (이론)	9급 종합반 (이론)	9급 문제풀이	법원/검찰직	9급 야간반	농업직/기술직	명품 "강력단과"	월 소방직 (전문)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기술직 강의시간 : 09:00 ~ 18:00 (2개월 완성)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사회복지, 농업기술직 강의시간 : 09:00 ~ 07:00 (12개월 완성), 매일 학습부담 경감	행정직/세무직/교육행정직/경찰직/교정직 강의시간 : 09:00 ~ 14:00 (4주 완성)	강의시간 : 09:00 ~ 19:20 (2개월 완성) 노량진 유명강사진 총출동!	강의시간 : 19:00 ~ 22:00 (3개월 완성) 대학재학생, 직장인을 위한 공무원 합격 총합반	강의시간 : 09:00 ~ 15:30 (2개월 완성) 4년 연속 농업직 전국최다합격자 배출!	영어, 국어, 행정학, 행정법, 국어, 일반, 화학, 경제, 과학 강의시간 : 15:30 ~ 18:30 (2개월 완성)	시험장과 동일, 체력측정기 도입 강의시간 : 09:00 ~ 07:00 (12개월 완성), 매일 학습부담 경감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직영 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개강
매월
1일